

#1 최근 극우사이트인 일간베스트 게시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인물과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의 인물은 염모습이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A씨와 닮았다는 이유로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근무' 논란까지 제기 됐다. 확인결과 사진속 인물은 A후보와 전혀 관련 없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이 게시물은 단체 채팅방, SNS등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 해당 캠프에선 대책마련에 애를 먹었다.

#2 지난달 28일 모 지방지, 모 중앙지 신문 하단에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 조치 촉구'란 주제로 광고가 실렸다. 이와 관련 광주시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 특정정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3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인 B씨는 상대후보 등의 도넛은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이 SNS등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자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오늘의 날씨

장성	5~19	흑산도	9~14
담양	5~19	구례	5~19
화순	5~19	곡성	5~19
영광	6~20	완도	10~17
함평	6~20	강진	7~17
무안	6~19	장흥	6~17
영암	5~18	해남	6~17
진도	6~18	고흥	7~16
신안	7~18	보성	7~16

일출 06:04 일몰 19:03
월출 04:36 월몰 16:11

목포	만조 00:06 12:38	여수	만조 07:49 19:55
	간조 05:40 18:12		간조 01:18 13:51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도넛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에 유권자들 '피곤'

광주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89건 조치

유권자들 "정책 경쟁 통해 깨끗한 선거 치뤄야"

6·13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경선 등 후보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 상호 비방전이 도를 넘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후보 진영들의 일정에 자질이 빚어지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피해도 속출해 각 선거 캠프에선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2일 광주·전남지역에 출마하는 선거 후보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지사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가짜뉴스 등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대후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흑색선전이나 가짜뉴스 등은 SNS나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각계 각층으로 퍼지고 있어 후보 캠프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선거법 위반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까지 광주·전남 선관위가 조치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총 89건에 이른다. 유권자들도 정책 및 공약으로 대결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는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회사원 백모씨(34)는 "최근 경선전이 가열되면서 일부후보간 정책과 미래 비전은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며 "후보자의 비전이 우선시되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공

정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선거관리 위원회도 가짜뉴스·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 전담 TF팀 구성 등을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허위 비방사실 등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방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시교육청 5·18 전국화 '시동'

전국 9개 시·도 교원 500명 초청 교육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국 9개 시·도의 500명의 교원을 광주로 초청해 이틀간 15시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교육 담당교사 워크숍을 실시하고 학교와 오월 역사 현장에서 5·18 교육 내실화와 전국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 계획을 안해냈다.

오는 12월까지 전국 시·도 학생 500여명을 초청해 광주에서 1박2일 캠프를 실시, 5·18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UCC제작, 스피드퀴즈, 골든벨, 심야영화제, 사투리대회 등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당한 10대 청소년 열사들에 대한 참배도 진행한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오월강사단도 지속 파견한다. 강사단은 체험활동 중심의 '찾아가는 5·18수업'을 진행한다.

광주 일선 학교는 자체계획을 수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5·18민주화운

동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학교가 최소 2시간 이상 5·18 교육을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5월14~25일)을 설정해 기념식, 현수막 게시, 계기수업, 각종 체험학습 등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18 학생 희생자 18명에 대한 추모 사업도 당시 희생자 재적학교 15개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5·18 당시 학생들의 각종 활동이나 행방불명 정보들을 취합·정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교사들의 5·18민주화운동 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월이야기' 사이버 직무연수를 연간 4회 개설해 운영한다.

10월에는 5·18과 제주 4·3을 연계한 직무연수를 교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5·18 교육의 전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학생, 교사들과 오월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304개의 별과 함께하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광주산정중학교는 12일 강당에서 '304개의 별과 함께하다'를 주제로 세월호 유가족 초청 추모행사 개최, 학생과 교사들이 유가족과 포옹하고 있다.

검찰 '광은 채용비리' 정황 다수 확인

본점·자회사 추가 압수수색...수사 확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5~2016년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광주은행 본점 인사부와 9일 자회사인 광주은행 비즈니스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2015~2016년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결과 이 기간 성별 합격 인원이나 학교별 할당된 채용 인원이 부적절하게 조정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인사 담당자가 부적절하게 채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이 은행 부행장보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추가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 /고광민 기자

신안 해상서 어선과 화물선 충돌

경찰, 선원 6명 사망·실종 경위 파악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외국 화물선과 충돌해 선원 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12일 0시 3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km 해상서 승선원 6명이 탄 신안선적 15t 근해자망 어선 2007연흥호가 탄자니아 국적 냉동 화물선(498t)과 충돌해 뒤집혔다.

2007연흥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는 0시 37분께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함정을 급파하고 주변을 지나는 선박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0시 42분께 해당 화물선을 통해서도 2007연흥호 충돌 사고를 접수했다

2007연흥호 승선원 1명은 사고 발생 약 50분 뒤인 오전 1시 25분께 해경 요청을 받은 민간어선에 의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오전 8시 26분과 27분께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 도중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상태다.

실종자 등을 찾기 위해 중앙·서해 해양특수구조대 19명, 경비함정 17척, 항공기 4대, 해군함정 3척,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2척, 민간어선 11척이 동원됐다.

잠수요원이 투입된 수중수색과 조명탄을 이용한 해상 수색은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해경은 방제정을 투입해 기름 유출로 인한 해상오염 피해를 예방 중이다.

탄자니아 국적 화물선 승선원을 상대로는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신안=이주열 기자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